

제107-1차 실행위원회, 추계 워크숍 개최

총신원 총동문화 총회까지

개혁대신교단 제107회기 총회(총회장 김의철 목사)는 지난 11월 14~15일(월,화) 양일간에 걸쳐 1차 실행위원회와 워크숍을 가지고 총회 이후, 증경총회장단과 새로 구성된 임원단을 비롯하여 상비부 부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노회장단의 상견례를 가지고 단합과 일치를 이루는 의미 있는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인천 연수구 송도 가나안교회당(김의철목사)에서 모였으며, 기간 동안 송도 가나안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섬겨 칭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체교회들의 귀감이 되었다.

이 모임에 앞선 예배는 총회 서기 배수영 목사(글로벌 예수교회)가 인도하였으며, 부총회장 조성운 장로가 기도하고 회의록 서기 유남규 목사(어울림교회)가 이사회43:18~21을 봉독하였다.

설교자로 나선 총회장 김의철 목사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증경총회장 강대민목사(성현교회)의 격려사가 있는 후에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

회)의 2일간 행사일정과 진행사항을 알리고 직전총회장 박형진 목사(새은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곧 이어진 워크숍은 부총회장 김정호목사(한소망교회)가 진행하였다. 증경총회장단, 전국 노회장, 상비부장, 상임위원회 임원 순으로 각자 자기소개 및 현황보고로 이어졌다.

현황보고에 이어서 진행된 워크숍의 첫 발제자로 나선 임종학 목사는 “교단발전비전과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기를 1. 교단직영 신학교문제, 2. 목회자 복지문제, 3. 교단발전 기획위원회 신설 등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회자와 인과 관계에 대하여” 경안노회 증경노회장 조석행 목사는 33년 군목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인과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여 호응을 얻었으며,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는 “총회와 노회행정”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하여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송도가나안교회



에서 제공한 사랑의 만찬을 나누고 가나안교회 50일 기적저녁집회에 참석하여 모두 은혜와 도전을 받음으로 저녁 일정을 마감하였다.

둘째 날, 15일(화) 9시에 소집된 총동문화에서는 김정호목사(한소망교회)를 회장으로 수석부회장에 조석행목사를 추대하였다.

10시에 시작된 세미나 1강은 헌법위원회 황호관 목사(증경총회장, 꿈꾸는 교회의 헌법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이 강의에서 황목사는 통합을 이룬 개혁대신교단의 헌법으로 채용된 개혁교단 헌법 중 특징적

인 내용을 소개하여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었다.

세미나 2강에서 호서대학 김동주 원장은 호서대학이 한국교회 선교중심이 된 사실과 호서대학 미래를 공유하였다. 이번 추계워크숍을 통하여 개혁과 대선이 진정한 원 팀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제3의 장로교단의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이번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섬긴 송도가나안교회의 당회와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모든 참석자들이 진심어린 감사사를 표했다.

총회장 목회서신

예배가 답입니다.



총회장
김의철 목사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1위는 당연히 성탄절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아주 추운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에 춘천에서 송도로 와서 개척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겨울을 지냈습니다. 돈 없이 보내는 겨울도 있었고, 외롭게 보내는 겨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겨울은 지난 코로나 속에서 보낸 겨울들입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작 힘들었다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지키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2001년 가나안교회를 개척한 이후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송도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그 예배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사람들이 가나안교회가 일어서게 된 비밀이 무엇이나 묻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라고 답합니다. 이 시대에 개척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 3년이 지나 상가를 털어내고 현 교회건물을 매입하였고, 8년이 지나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예배를 드렸지만 토요일 저녁예배는 주일 준비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

다. 심지어 너무나 많은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없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밤 10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신고당하여 밤 11시로 옮겨졌습니다. 그것도 신고 당하여 새벽 4시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위험한 눈길을 운전하여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교회 교역자들은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수고를 참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앓이를 많이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지나친 걱정을 해 주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교회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예배드리다가 망하면 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예배를 지켜낸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예배의 불을 꺼버리면 코로나가 끝이나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절 기존교회들도 유지하기가 힘들어 부교역자들을 줄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속하고 선교와 교역자를 줄이지 않았습니

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3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산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각 개체교회들이 부흥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저녁 8시에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아니면 사모님과 함께 예배드리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07-3차 임원회 영상으로

2023년도 신년하례회 일정 및 장소 잠정결의



본 교단 총회 제107회기 3차 임원회(총회장 김의철 목사)가 지난 11월 21일(월), 오후5시 비대면 화상회의로 속개되었다. 회의에 앞선 예배는 서기 배수영 목사(글로벌 예수교회)가 인도하였다.

부총회장 조성운 장로(길교회)가 기도하고, 회의록 서기 박공서목사(새부천교회)가 여호수아 1:8절을 봉독한 후에 총회장 김의철 목사(송도 가나안교회)는 “형통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쳤다.

한편 부서기 이다윗 목사(찬양교회)의 회의

를 위한 기도 뒤에 서기 배수영 목사가 호평하고 의장이 개회됨을 선언하였다.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의 추계 워크숍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회계보고와 전 회의록 낭독은 유인물로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날 상정되어 결의한 주요안건은 2023년도 신년하례회를 23년 1월9일(월) 전주어를 립교회 예배당에서 열기로 잠정 의결하여 신년도를 향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규 목사(어울림교회)의 폐회기도 후에 산회하였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제27회 총동문화

신임회장 김정호목사, 상임부회장 조석행 목사 선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총동문화(회장 김선영목사, 월드비전교회)는 지난11월15일(화)에 인천 송도 가나안교회(김의철목사사무)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모임과 행사를 갖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웠으나 코로나 확진세가 진정되어 감에 따라 동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전국 동문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회무에 앞선 개회예배는 부회장 진상운목사(에벤에셀교회)가 인도하였고, 직전회장 이경근 목사(평안교회)가 기도하였으며, 인도자가 성경을 봉독한 후에 총회 회의록서기인 유남규목사(어울림교회)의 특송이 있었다.

설교자로 나선 총신총장 임종학목사께서 “가르쳐 지키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동문화 회계 김종봉목사의 봉헌기도가 있는 후에 총신 이사장 윤서구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7회 정기총회의 회무는 회장 김선영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서기의 회원점령이 있는 후



에 회장이 개회됨을 선언하고, 서기보고와 회계보고를 받고, 제27회기 임원선거 방식은 동문화 증경회장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발표하기로 정한 바에 의하여 전형위원회에서 선출된 별항의 임원을 발표하였다. 신규임원교회와 회장취임식으로 이어졌다. 신임회장의 취임사에 이어서 취임패와 기념 배지 수여, 격려사(증경총회장 강대민 목사, 총재(총회장 김의철 목사) 후에 증경회장 정완득 목사의 축도로 모든 회무를 마쳤다.

신임임원 명단 : 회장 김정호목사, 상임부회장 조석행목사, 부회장 임용태목사, 배수영목사 총무 진상운목사, 부총무 김영식목사, 서기 이규천목사, 부서기 유남규목사, 회계 김종봉목사, 부회계 김건수목사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총회장
김의철 목사



부총회장
김정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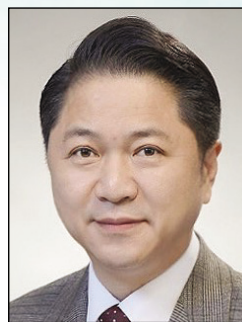
부총회장
조성운 장로



서기
배수영 목사



부서기
이다윗 목사



회록서기
유남규 목사



부회록서기
박공서 목사



회계
김천수 장로



부회계
김종민 장로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대신총회

社 說

워크숍 효과의 극대화를 주문한다.

지난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친 제107회기총회 추계 워크숍은 과거의 어떤 워크숍보다 알찬 내용으로 상당한 소득을 거두었다는 고무적인 평가가 들려온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공력을 드러왔다. 없는 일, 될 것 같지도 않은 일을 시작하여 변페스롭게만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고, 통합 후에 갖는 첫 워크숍이라서 불확실성이 짙었기에 관계자들이 더욱 힘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기우에 불과했다. 우선 예산을 지나친 높은 참여도에서 그러했다. 하룻밤을 지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음에도 여느 때보다 참석자의 수가 많았고 참석자들이 보여준 진지한 태도에서 희망을 보았다. 장소를 제공한 송도가나안 교회가 보여준 희생적인 섬김은 아주 고무적이었다. 참석자들의 입에서 불평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를 입증한다할 것이다. 그리고 관심을 끌만한 주제들의 등장을 빼 놓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더 나은 워크숍을 위한 고민과

성찰은 꼭 필요하다. 우선 모임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산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실행위원회, 워크숍, 총동문회, 그리고 예배까지 그러니 시간에 쫓겨야 하고, 핵심을 놓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 번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조급증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실행위원회만 해도 진지하게 임할 아주 중요한 회무가 아닌가? 워크숍은 교단 발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노회들과의 소통은 물론 전략을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자들의 성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얻는 게 있고 받아가는 게 있어야 다음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이다.

준비된 발제에 이은 치열한 토론과 질의응답은 워크숍의 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회의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머리에서 구상되고 계획되는 것으로서는 열매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교단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

증경총회장 가운데 한분께서 교단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기서 제기된 실제적이고 건설적인 과제가 바로 교단발전위원회의 구성이었다. 이는 교단의 실제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행정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회칙에 의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비부서와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역사하는 힘이 지대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거의 모두가 개점 휴업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위원회 하나를 더 한다 해서 무

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것을 반문해 봐 줄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교단발전위원회보다는 기획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교단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이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107회기는 어쩌면 기회의 문을 연 원년으로써 수행하여야하는 과제가 많다.

그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단발전기획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바라기는 상비부서와 상이위원회, 그리고 각 노회들 간에 능동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되도록 힘쓰는 총회 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중부노회 전주재언교회 위임식

목사, 장로 등 임직식 가져



전북중부노회(노회장 정완득목사, 성인교회)소속 재언교회(담임목사 김규배)는 지난 11월 5일 김규배목사를 위임하고 장로 5명을 비롯해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등 총16명을 임직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임직예식에는 재언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교회가 소속된 전북중부노회의 임원과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목사위임과 일꾼들의 임직을 축하하고 축복했다.

예식에 앞선 예배의 인도는 노회 위임국장 이자 재언교회의 원로목사인 임종학 목사가 담당하였다. 노회서기 박숙희목사(동산교회)가 기도했고, 전북중부노회장 정완득 목사(전주

성인교회)가 “베드로의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후에는 예배와 예식 규범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었으며, 위임예식에 참석한 전북중부노회 소속 목회자들은 위임목사와 임직자 및 교우들에게 권면을 했고 특히 진상운목사(예벰예셀교회)는 김규배목사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양들을 살찌게 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 달라”고 권면했으며, 어울림교회 유남규 목사가 위임기도를 하고 위임국장 임종학 목사는 김규배 목사가 재언교회의 위임목사 되었음을 공포하였다.

이어 당회장 김규배목사의 인도로 임직예식이 진행되었다.

• 장로장립 : 이동호, 김중윤, 명영섭, 홍태형, 노찬영
집사임직 : 김영권, 오재섭, 송원웅, 배종권
권사임직 : 유예순, 백규미, 최경옥, 최은옥, 박정실
명예권사 추대 : 이란순, 김옥자.

전북동노회 교역자 아우회

전북 동 노회 교역자회(회장 정인직 목사)에서는 지난 11월 7일(월) 오전10시, 낙원교회(김종봉목사) 예배당에모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다.

이날 예배는 교역자회 서기 김드보라목사가 인도하고, 부노회장 양기만목사(명화의문교회)가 기도하였으며, 교역자회 회장 정인직목사(생명의빛교회)가 “연합의 아름다움” (시 133: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교역자회 회계 손경희목사의 봉헌기도 후 노회장 주상기목사(좌포은총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비응도를 향하여 출발했다. 회원들 간의 친교와 친목을



도모하는 행복한 만찬의 하루 일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우회의의 모든 재정은 증경노회장단, 노회원들, 교역자회 임원들의 하나 된 마음이 모아져서 만들어 졌고, 단 하루였지만 먹고, 보고, 쉬고 즐긴 사랑과 힐링의 만족한 날이어서 너무 행복한 잔치였다고 입을 모았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종강예배

총회개혁신학연구원(원장 임종학 박사)은 지난 11월 19일 본교 강의실에서 제3학기 종강예배를 드림으로 2022년도 학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방학에 들어갔다. 이날 예배는 교무처장 이다윗 목사(찬양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총무처장 정영덕 목사가 기도하고 이사장 윤서구 박사가 “코람데오창39: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원장 임종학 박사는 회화를 통하여 제 학생들을 격려하고 새 학기를 위하여 잘 준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교단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는 광고 시간을 빌어 교단의 밝은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교수부장 황호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



다. 한편 금번 학기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교수진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현장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교사로 인도해주셨다. 새 학기 개강은 2023년 2월 18일로 예정되어있으며, 졸업식은 1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전북지역 증경노회장단 정기총회와 야외예배

2023년도 신입회장에 이경근목사(평안교회) 선출



전북증경노회장단(회장 장상권목사, 살렘교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11월18일(금)에 임실군 옥정호 봉어섬 출렁다리 관광과 즐거운 아우회를 가졌다. 이날 관광에 앞선 예배는 전북개혁신학원 예배실에서 가졌다. 예배는 서기 김종봉목사가 인도하였으며 부회장 진상은 목사가 기도하였다.

설교자로 나선 장상권 목사는 “오늘은 즐거운 날(렘5: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서기 김종봉 목사의 광고에 이어 상임 부회장 이경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미리 준비된 관광버스 편을 이용하여 옥정호 산장에 도착하여 오찬을 나누고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관광 스케줄을 즐기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관광을 마치고 돌아와 2023년도에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전북개혁신학원에서 속개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서기 김종봉 목사(00교회)가 인도하고 상임부회장 유호걸 목사가 기도하였으며, 회장 장상권목사(00교회)가 “인생은 즐거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부회장 진상운목사가 광고하고 직전회장 재영구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속개된 회무는 회장 장상권목사의 사회하고 증경회장 류현욱목사가 회무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서기 김종봉목사가 회원점명을 하고 15명 출석을 보고하자 회장이 개회됨을 선언을 하였다. 회계보고가 있는 후에 전행위원회(증경회장단)에서 선출하고 유호걸목사가 별장과 같이 신 임원을 발표하고 만찬을 나누며 새해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하고 산하하였다.

• 신입원명단 : 회장 이경근목사, 상임부회장 김정호목사, 부회장 김종봉목사, 신장균목사, 총무 진상운목사, 서기 정대진목사, 회계 정인직목사

전국장로연합회 제50회 정기총회 및 수련회

주제 : 성령을 따라 행하라(갈5:16), 회장 : 김재호 장로 선출

전국장로연합회(회장 김재호장로)는 22년 11월4일-5일(금,토)일 5시, 인천 연수구 송도가나안교회(강의철목사)에서 제50회 정기총회와 수련회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갈5:16)는 주제 하에 열렸다.

총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회장 김재호장로(한소망교회)의 인도로 진행됐다.

부회장 박인규장로(모악교회)가 기도하고, 부회장 박병욱 장로(꽃밭교회)가 요한3서1-3절을 봉독하였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증경총회장 황호관 목사는 “가이오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드러진 헌금을 위해 회계 이정두장로(인월동광교회)가 봉헌기도를 담당했다.

연합회 총무 조성운장로(길교회)가 행사일정 안내와 연합화광고를, 교단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떡소제일교회)의 교단광고가 있는 후에 총회장 강의철 목사(송도가나안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정기총회를 위한 기도는 증경회장 이영진 장로(좌포은총교회)가 담당하였으며, 회장 김재호 장로가 총회의장으로서 회무를 진행했다.

서기 박병욱장로(꽃밭교회)가 회원호명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회순에 따라서 전회의록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사업경과보고, 회칙개정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제51회기 임원을 선출(별창)하고 신,구 임원 교체 후에 한국 장로총연합회 총회장 최



내화 장로의 추사와 증경회장 김일출장로(소성교회)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폐회한 후에 만찬을 나누었으며 수련회의 일환으로 송도가나안교회 50일 기적집회에 모두 참석하였다. 2일차(5일) 수련회 첫째 강의(오전11시)의 강사로 나선 김의철 총회장은 “주님 안에 거하라(요15:7~8)” 주제로 강론하였으며, 곧 이어진 제2강 겸, 폐회예배의 설교자로 나선 총회서기 배수영 목사(굽로발예문교회)의 “자지만 위대한 소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끝으로 제50회 정기총회와 수련회의 모든 일정의 막을 내렸다.

• 신입임원 명단
회장 : 김재호(전북; 한소망) / 부회장 : 박병욱(전북; 꽃밭), 박인규(전북; 모악), 이한일(전북; 소성), 김천수(경안; 송도가나안교회) / 서기 : 양윤기(전북; 모악), 부서기 : 김수민(전북동; 익산동명) / 회의록서기 : 김수용(전북; 소성), 회의록부서기 : 박안식(전북동; 낙원) / 회계 : 이정두(전북; 인월동광) / 부회계 : 김진규 (경안; 송도가나안), 감사 : 권병락(전북; 서현), 이영진(전북동; 좌포은총) / 총무 : 조성운(전북; 길)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총회장
김의철 목사
(송도가나안교회)



본보 이사장
박성욱 목사
(뽕엘교회)



본보 사장
황호관 목사
(꿈꾸는교회)



부사장
박경남 목사
(중심교회)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 조직신학)

(지난호에서 이어짐)

2.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바울 사도는 기가 막힌 대조법을 사용 하여,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두 부류의 대표자로 제시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설명한 핵심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고,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죽음을 처해졌다.

바울 사도는 부활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두 사람의 대조를 사용한다: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 15:45). 처음 창조는 첫 사람 아담과 관련 있었으나,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아담의 부활과 관련 있다. 구원과 관련된 체험은 부활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창조 안에서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처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복음이 선포되었다.

아담과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생애 기간 동안에 모든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아담의 실수를 온전히 회복하였다.

신약 복음서는 인류의 구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죽음을 처해졌다.

탄생부터 전 생애에 대해서 언급했고, 하나님께 하나씩 전 생애를 통해서 이뤄진 일들이 담겨있는 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확증들이다. 로마서 5장 12-21절에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결국

은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왔음을 설명하면서, 반대로 그리스도와 대조를 시키고 있다. 존 머레이 교수는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과 후손들의 것으로 간주되어졌다는 전가의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 1) 아담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죽음과의 긴밀한 연합 (롬 5:12,15,17)
- 2) 아담의 죄와 모든 사람의 정죄와의 밀접한 연합 (롬 5:16,18)
- 3) 아담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가 긴밀히 결합됨 (롬 5:12,19)
- 4)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의 본질적인 대조 (롬 5장 전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의롭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팔고다에서 이뤄졌거나, 십자가에서 수행되었다는 지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속죄뿐만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모두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분리될 수 없다. 개혁주의 신학자 리델보스는 이 연합이 “실제적이며, 대표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주적이고도, 종말론적인 성격”이 포함된다고 풀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성취로 제시되는 구원의

객관적 준비와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주관적 수용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관적 사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기초해서, 즉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의가 완전히 실현되어서, 영생과 축복이 죄인에게 주어졌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두 갈림길에서 아담의 길로 따라가는 데서 비롯된다.

모든 인간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어서 빨리 아담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후회할 일들을 하다가는 패망하게 되므로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도덕적인 율법의 특성을 분명하게 제정하였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5:17-18). 율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거나,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 율법은 반드시 사람에게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며, 이뤄져야 한다.

물론, 예수님만이 이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자칭 의롭다 하는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묻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든 기록되었느냐”고 반문했다.

레위기19장 18절,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눅10:28).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사랑 하라고 하였고,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강조했다. 같기는 “새 계명”이란 이전의 옛 계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강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3. 중보자의 순종과 언약의 성취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총체적이며 완전한 순종을 전가 받는데,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의 결과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신 요구들에 부합하기 위해서 만족함을 완전히 실천하였다(롬 3:26).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서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음호에 이어)

동정



김의철목사(총회장, 송도가나안교회)
11월5일(토) 전장연 총회특강
11월14일(월) 추계워크샵 설교
11월21일(월) 제3차 임원회 설교



박형진목사(직전총회장, 새은혜교회)
11월 7일(월) 경서노회 임원회 참석
11월14일(월) 추계워크샵 축도
11월27일(주) 꿈꾸는교회 임직식 설교



임종학목사(증경총회장, 재언교회)
11월5일(토) 총회신학 강의
11월14일(월) 추계워크샵 특강
11월28일(토) 총신 중앙예배 격려사



류현옥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10월 29일(토) 평안교회 설립기념 임직식 설교
11월 7일(월) 교역자회 आयु회 기도
11월 8일(화) 여전도회 연합회 설교
11월 14, 15(월,화) 추계워크샵, 총동문회 기도



황호관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
11월4일(금) 전장연 총회 및 수련회 설교
11월12일(토) 총회신학 강의
11월15일(화) 추계워크샵 헌법특강



윤서구 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11월14일(월) 추계워크샵 참석
11월19일(토) 총회신학 강의
11월 26일(토) 총회신학 중앙설교



김정호 목사(부총회장, 한소망교회)
11월14일(월) 추계워크샵 참석
11월15일(화) 총회총동문회 회장선임
11월15일(화) 추계워크샵 진행
11월21일(월) 3차 임원회



배수영 목사(서기, 예수글로벌교회)
11월 5일(토) 전장연 수련회 설교
11월7일(월) 추계워크샵 준비회
11월14일(월) 추계워크샵 사회
11월21일(월) 3차 임원회 사회



이다윗 목사(회의록서기, 찬양교회)
11월 7일(월) 추계워크샵 준비회
11월19일(토) 총회신학 중앙예배
11월21일(월) 3차 임원회 참석



조석행 목사(전 군목, 경인노회)
11월 14일(월) 추계워크샵 특강
11월 15일(화) 총신동문회 수석부회장 선임
11월 19일(토) 송도간안교회 설교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11월4일(금) 전장연 총회 참석
11월7일(월) 추계워크샵 준비회
11월14-15일(월,화) 추계워크샵
11월21일(월) 경기노회 설교

조직신학



유정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인간은 물질적 요소인 육체와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으로, 혹은 비물질적 요소는 세분화하여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간의 구성요소 혹은 본질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이번 호는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을 세분화하여 영과 혼으로 나누어볼 때 혼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이다.

성경에 언급된 혼(soul)은 헬라어로는 쉰케로 생물학적 생명력을 말한다. 즉 육체 및 세포의 기능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의식이나 욕망, 기억력, 이해력, 그리고 상상력으로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발

표되는 기능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모두 공유하나 사람과 동물의 혼은 엄연히 구분된다. 욕기 14:7-10은 식물과 동물이 지닌 생명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로 주어진 것으로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나 동물의 혼은 창조의 일환 속에 포함된 사건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의 혼은 개인적으로 독특한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 개로 쪼개어 나누거나 각기 다른 혼을 섞어 혼합할 수 없다.

또한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는 품성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혼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영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인 경우 육체를 근거로 활동하는 혼이 인간의 지배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 혼이 개인의 행동이나 의식 및 욕망을 지

배한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므로 영은 육체의 제약 안에서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이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혼과 영을 유지하는 그릇에 해당하는 육체(고후4:7)와 영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 즉 인간의 혼은 호흡(사2:22)과 피의 순환(창9:4)으로 이루어진다(요6:53, 히9:22).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우 혼은 그 기능이 정지되며 우리는 이 같은 상태를 혼이 떠나갔다, 즉 사망했다고 한다. 따라서 혼은 영의 기원과는 구분된다. 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에 후천적으로 첨부하여 주신 기능으로 직감, 의식상의 기능(살전 5:21)을 갖는다. 육체와 혼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롬12:1-2). 인간의 혼은 내향적 작용 (Contraction)을 지니는데 먼저

는 자신을 이해하는 기능(Self Comprehending)과 자신 밖으로 확장하는 기능 (Stretching Beyond It Self)을 갖는다. 자신을 이해하는 기능(Self Comprehending)이란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 또는 대인 관계에 만족감을 느끼면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만족감을 갖게 되는 반면 자신의 상태나 대인 관계에 있어 불편한 상태에 있으면 불평과 불만에 싸이게 되어 불안감, 좌절감, 그리고 소외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혼은 생명력으로 역동적(Dynamic)이므로 자체를 유지하는 기능 이외에 외부로 확장해 나가는 힘(Stretching Beyond It Self)을 갖는다. 그러나 역동적 확장력이 주위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 제지되거나 억압됐을 때 혼돈감, 좌절감 및 절망감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심을 갖게 되는데 이 같이 발생한 분노심은 파괴성(Destructiveness)으로 발휘한다.(Eric Fromm)

그러므로 외부적 상황이나 전통, 습관, 및 규제 등을 무시하고 외부적 확장의 기능에만 몰두하는 경우 무모한 행동을 하며 오만한 무법자가 되거나 독재자가 된다. 혼의 내향적 작용과 더불어 혼은 자생의 원리(Self-Living)인 확장 작용 (Expansion)의 기능을 갖는다. 자생력 (Self- Living Power)에 의해 인간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정지시킬 수도 있고 (자살 또는 자의에 의한 순교) 자신의 결정에 의해 연장 및 확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한 상태는 이 생명력이 영혼의 영향을 받아 생명의 목표가 변화(고후 5:14-17)되어 생의 방향이나 원리가 완전히 변화될 가능성을 갖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능적인 기능을 초월하여 새마음, 새성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가능성의 실현화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엡 5:18)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갈 5:16,18)이라 할 수 있다.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덕소제일교회)



증경총회장
류현옥 목사
(동명교회)



증경총회장
김정용 목사
(중울산교회)



논설위원장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지상설교 우리가 부를 감사의 노래” (시편 100편 1 - 5절)



서용진 목사 (상촌교회)

추수감사절과 우리 교단을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에 통해 감사의 영이 더욱 충만해 지기를 소원합니다.

1.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게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며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관 매우 어렵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환성을 올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1절). 백성이 왕의 나 타남을 인해 환호성을 치듯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인해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그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최대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감사해야 합니다(2절).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의인으로 대접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는 자극히 작은 자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자라고 하셨습니다(마25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감사하는 자의 생활입니다(2절).

감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 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삽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롬 1:21 - 23).

그러므로 우리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써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또 우리는 형통할 때뿐 아니라 넘어

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엡5:20).

이와 같이 환호성으로 외치는 언어적 증거와 착한 행실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2.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3절).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비로소 피조물된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인간은 전진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우리는 그의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를 쉬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되셔서 양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없이 채워주시므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3절, 시23:1).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자족하기를 배우고(빌4:11, 12),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약속(마28:18 - 20)을 믿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이나 생명이거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롬8:35 - 39).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므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5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며 그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후대하시니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 자신과 교회와 민족 사회에 베푸시니 이를 감사해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불변하신 사랑으로 돌보시니 우리는 그 사랑이 중단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항상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영호와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터키선교



10월초 수요일 K시의 저희 공동체로 모이는 장소에서 B자매(21)를 만났는데 어릴 때 부모가 헤어진 후에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B자매는 K시의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는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밝고 복음에 관한 궁금한 질문을 주고 받은 후에 감사하게도 그 날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B자매가 쉬지 않고 일하기에 주일모임에 참석할 수 없어서 요약한 주일말씀을 보내주었는데 환경이 변화되어 주일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9월초 I시의 성경통신을 통해서 K시로 부터 2시간거리 E시의 지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M(36)형제를 만나기 위해 방교도소를 방문했는데 성(姓)이 같은 가족이 아

(시42:11) 아멘!

E시의 G형제가 분노조절장애 약을 끊은 후 증세가 더욱 나빠져 E시의 심리치료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니면 면회가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돌아서려다 교도관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그의 도움으로 어렵게 내선전화로 연결해주어 M형제와 대화해보니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고 하는 말에 당황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질문했습니다.

M은 수감되기 전에 기독교TV를 시청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며 폭력으로 들어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년 후에 출소하면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형제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선전화로 기도한 후, 약간의 물질을 차입금으로 지불하고 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방이 담으로 막힌 환경에서도 M이 오직 주께 삶의 소망을 두기를 비유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속에서 불안 해 하는가? 너는 주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주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쁨사랑의 소식

R자매는 9월 중순 T국인 남편과 함께 물도바를 거쳐 루마니아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23년 1월로 연기하고 K시의 주일모임에 참석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지만 주께서 R자매를 선하게 인도하시길 구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9월에도 R자매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십일조를 드리고 A시에서 교사로 일을 시작한 F자매의 둘째아들이 첫 월급 중 십일조를 저희 공동체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R자매의 남동생 N이 수년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했는데 R

그와 대화를 통하여 마음이 가난해진 것을 깨닫고 예수께서 많은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치유해 주신 사랑을 나누며 주일모임에 초청했지만 형제는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예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는 치유자이며 영혼의 장 애도 고쳐주실(여호와 라파)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K시에서 시간이 지나며 좋았던 시간은 점점 멀어진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오래전 샌프란시스코의 허름한 랜트마크 극장에서 화양연화관 영화를 감상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세월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과의 만남도 오늘 만나지 못하면 내일은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못 만나는 이유는 바빠서, 다른 일에 더 관심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2년여 저희가 사람을 마음대로 못 보는 비대면의 시간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비 대면이 익숙해져서 주일모임에 나오지 않는 한 형제가 안타깝지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K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영혼과 만남을 미루지 않는 사역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12월말에 다음 소식 드릴 때까지 동역자님의 평안을 빕니다.

기도 제목

1. 새로 믿은 B자매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주를 의지하며 주일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일을 구할 수 있도록/ E시의 M이 감히있는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2. 주말에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하는 S자매가 주중으로 근무시간을 바꾸며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R자매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주할 수 있도록

3. E시의 G형제가 분노조절장애가 심해서 K시의 심리치료병원에 2주간 입원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사탄의 묶임으로부터 치유되어 되원할 수 있도록

후원관리 : GMP AMERICA(감기쁨사랑지정) check보내실곳 : P.O.Box 555 Ellicott City MD 2104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김의철 목사



이사장 박성욱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5,100,000	박성욱	2,400,000	최현일	50,000
총회신학교	4,000,000	박경남	4,000,000	이하종	50,000
박 형 진	1,400,000	호서노회	200,000	김해수	50,000
김 의 철	600,000	공구노회	400,000	벤델교회	350,000
경기 노회	1,000,000	류현욱	300,000	김종봉	300,000
전북 노회	1,000,000	김일출	1,000,000	임재송	70,000
전북동노회	1,000,000	박광식	350,000	김정호	100,000
전북중부노회	500,000	신연식	50,000	강대민	300,000
서울남노회	300,000	박연성	50,000	이정근	300,000
서울동노회	500,000	김선명	350,000	이부교	350,000
경기서노회	300,000	육한수	50,000	서용진	50,000
전남 노회	300,000	박춘배	350,000	권명희	50,000
남부 노회	100,000	권병락	100,000	한마음교회	35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總 會

改革公報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구독료는 5만원 입니다.

※ 예배광고비는 연간 30만원 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 會

改革公報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358-0191 팩스: 02)742-3539

더불어 생각할 正論



류현옥 목사
(중경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한국교회의 정통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으로 시작되는 청교도적인 개혁주의 신앙이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젖어 들도록 교육을 해 왔다. 건전한 신학과 신앙이 확립될 때에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복음의 현실성을 불변성과 함께 다루는 가장 건전한 신학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16:16)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정통교회의 신앙고백이 되었고 정통 진리의 초석이 되어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1919년 이후에 신정통주의, 세속화 신학, 상황 윤리, 신비주의, 경건주의, 근본주의, 신복음주의 등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개혁주의 신학을 희석시키고 밀어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청교도적인 개혁주의 보수신학이란? 일 잘 할 확이라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바울사도, 아나사시우스(Athanasius), 어거스틴(St. Augustine)과 요한칼빈(J. Calvin)에 의하여 전파된 역사적 기독교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파함으로써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 되도록 하는 신학이다.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은,

1.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계시인 성경 신학이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의 말씀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영감에 의하여 기록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언제나 철학적인 것보다 성경적이었고, 사본적인 것보다 실제적이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의 본문연구와 성경 주석에 주력하였고 성경 말씀을 반복하여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밝히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교회가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도록 말씀을 체계화하고 성경 자체의 정경 성을 입증하도록 연구를 거듭하였다. 개혁주의가 바로 설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 있다. [스필젠의 성경예찬론이다. ①성경을 애독하라 이는 하나님의

청교도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

말씀이다. ②성경을 준수하라 이는 하나님의 헌법이다. ③성경을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을 신앙하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피와 살로 기록한 사랑의 편지요 아무리 읽어도 영원히 못다 읽을 목사의 편지이다.

2.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예정 교리신학이다.

예정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특별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예정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교리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인간의 전적 무능력/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고 그래서 구제 불능한 존재가 되었다. ②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멸망 받을 죄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조건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 ③하나님의 한정된 속죄/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되 그 가운데에서 구원할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다. ④불가항력적 은총/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의 은총 받는다. 유 기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선택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⑤궁극적인 구원/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심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진행하신다.

3.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별신학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지존자인 신(神)과 의존자인 인간(人間)의 엄격한 구분을 가지는 구별신학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의 실체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접근해서서 죄악으로 멸망 받을 인간의 죄된 성품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실 때 신(神)인(人) 양성을 지니게 하셨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접근할 수 없음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읽는 데 안내역 할을 하면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성경 각 절을 읽을 수 있게 하며 공교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설교를 하게 하고 개인 생활과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형성하는 데 목적을 하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이란, 과학적 지식보다 훨씬 더 개인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이에 따르는 순종의 생활이 요구하고 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 신앙인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먼저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을 기초해야 한다.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중울신교회 담임)

지상교회는 전두하는 교회다. 그리고 전두의 대상은 사탄이다. 바울사도는“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6:12)하였다. 사탄은 자신들이 영벌에 처할 종말이 가까울수록 최후의 발악을 한다.

특히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며, 또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탄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세에 일어날 재난들을 경고하신 감람산 강화의 첫 번째 경고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24:4)는 말씀이었다. 또 “도둑이 오는 것

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요10:10)고 말씀하셨다.

최근 서울 이태원에서<헬로윈데이>축제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156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밀려드는 인파에 압사당하는 실로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났다. 해마다 10월 31일 이맘때쯤이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대적인<헬로윈>축제를 벌이고 즐긴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헬로윈데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사회적 축제에 가까운 정도로 더욱 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 특히 아무런 의미 없이<헬로윈데이>를 즐기며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에 의하여 잠식되어 가는 모습들에 두려움이 앞선다.

<헬로윈>은 약2500년 전 아일랜드의 켈트(Celt)족이 사메인(Samhain)이라는 죽음의 신을 섬기면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죽은 후 인간영혼은 사메인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일 년에 한 번씩 사메인 신을 달래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이 곧 10월 31일이었다.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냥개지도 번제로 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헬로윈> 축제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은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재미있다는 이유로 뽀빠이어나, 좀비가

면을 쓰는가 하면, 페인트로 얼굴에 괴물형상을 그리고 광란의 춤을 추며 즐긴다. 한마디로<헬로윈>축제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의 축제이다. 그러나 용산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그것이 사탄의 축제라는 사실을 알고서 참석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 믿고 싶다.

그런데 사탄은 축제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여 사탄을 숭배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스럽다 못해 의문이 치민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간교한 사탄이 이태원 참사를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극단적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일부 악덕정치인들이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아픔과 국가적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의 재료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진실과 정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음이다. 이 자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는 위선자요 사기꾼들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언론들까지 여기에 편승하여 가짜뉴스로서 선량한 국민을 선전 선동하여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음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무리들은 분명 사탄의 일꾼들이다. 왜

나하면 사탄은 본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소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일부 성공회신부와 천주교 신부가 외국순방 중인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도록 기도해 온 국민이 함께 염원을 모아달라는 저주의 호소문을 SNS에 공공연히 올리는 참담한 사태를 보면서 어찌 악당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지금 사탄의 저주가 대한민국을 삼키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사탄의 저주를 대적해야 한다. 사탄을 대적하여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회복되어야 한다. 첫째, 진리의 말씀, 곧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둘째,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를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벧전5:7~8)고 하였다. 한국 교회여! 깨어 일어나 사탄의 저주를 대적하자! 그리하여 민족복음화를 이루고 자유민주의 체제로 평화통일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나라를 세워나가자.

게시록 5분 강의노트(19회)

그렇다면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의 영광을 지닌 그 천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의 ‘불기둥 같은 다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불기둥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제 그 천사는 새 이스라엘이 영적인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신적 전능자의 모습으로 서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책,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피로 죽임과 저주로부터 출애굽 시킬, 즉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신적인 목적과 비밀인 복음일 것입니다. 한편 엄청난 크기의 천사에 비해서 균형에 맞지 않게, 그의 손바닥에 패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그가 온 세상과 창조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왜 작은 책이 퍼져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5장 6-8절의 내용을 기억하는 독자들이라면, 5장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고 6~8장에서 두루마리의 일곱 인봉을 모두 떼어졌으므로, 그 두루마리는 이제 펼쳐진 책이 되어, 천사는 그것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그 손에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며...”) (3절)고 되어있는데, 그 힌트 천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계 5:5(참고, 호 11:10, 암 3:8)에서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란 표현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여기서 (시편 29편을 참고하면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은유한) ‘일곱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하늘에서 소리 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그것을 인봉하라”(4절)고 한 그 명령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을 연기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왜 이처럼 “심판을” 지체하시는가? 라고 따져 묻는다면, 그 이유는 베후 3:9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해의 희생자들은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공의를 텅 비라는 것이 아니라 저비를 더 바라시고, 그 분이 증인을 돌보시기를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박해한 자들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손대기를 삼가시고 그의 결정들을 따르도록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이 악인들을 심판하기를 삼가셨기 때문에, 무죄한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그림과 음악같은 환상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5-7절에서는 팔히 이루어질 임박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으며, 5-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체없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8-10절에서 하나님의 종된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패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명령하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고, 그 천사는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값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의미에 대해서 “헨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그a작은 책, 즉 복음을 먹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쓰디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예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장에서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초대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주님의 일꾼들이 부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의 예식입니다.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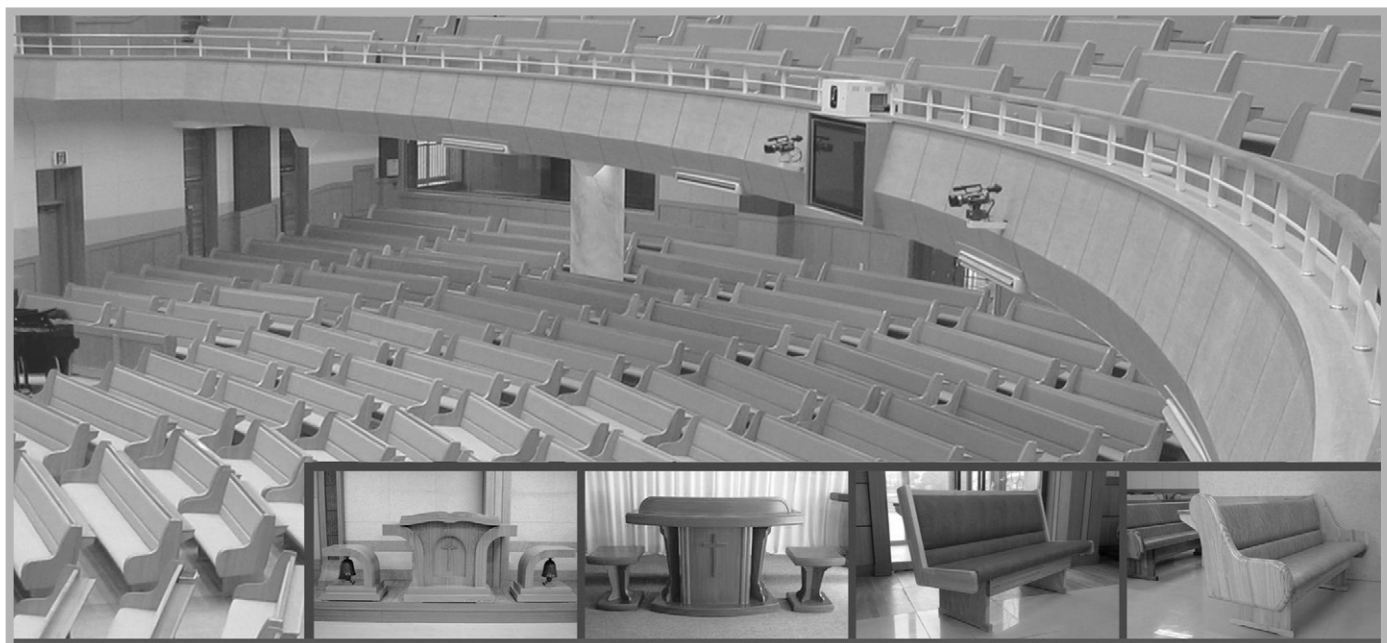
박만진 배경숙 의 장남 요한 군
성광운 남효의 의 장녀 하진 양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오후1시30분
한전아트센터 4층 양지홀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2길 60(서초동1355)
한전아트센터 웨딩프라자(010-5436-4150)
지하철 3호선 1번 출구



대표이사 김재호 장로
010-3653-6162
(본 교단 전국노회 한스망교회 시무)

(주)모리아성구사

기술특허업체
품질인증업체
벤처기업인증업체

문의 1644-6162

강대상, 장의자, 개별의자, 극장식 의자, 레자 방식, 성가대 가운 등
기타 성구품목 전문생산

사훈

신앙 :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품질 :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자세 : 최선을 다하여
목표 : 세계선교를 이루자



모리아성구사
www.moriah.kr

서울사무실 : 고객센터: 1644-6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6(송파동) 3층
전주공장 : 일반전화: 063)211-616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97-4
인도네시아 공장 : 14A Block F1 Tamman Pinang Indha, Sidoarjo, Surabaya Indonesia

재언

하나님의 때와 기다림



김상섭 목사
(동주교회)

경우에 따라서 기다리는 일이 참 즐거울 수 있는가하면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피로울 수 있다. 기다려야 할 일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들어보려 한다.

내 생각에는 도무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성공에 다다른, 그래서 기막히게 좋았던 순간이 있었는가하면 그와는 정 반대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았는데 어이없게도 실패의 자리에 서서 탄식하고 가슴을 친 경우도 있었다. 기다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신다. 농부는 논과 밭에 곡식을 심고 무수히 많은 시간을 기다린다. 우리민족은 조금성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민족이다. 매사에 서두르고 진득하게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모름지기 성도라면 매사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후사이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꼭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 이어서 좋게 느껴지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 안에는 능동적인 열정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중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는 기다려야 한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10개월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사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궁중에서 잉태한 생명은 자라기 마련이다. 강하고 열정적인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자극할 수동적이지만 그 안에는 능동적인 열정으로 충만한 까닭에 그러하다.

생명이란 씨앗의 신비며 기다림의 결과

요 열매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하고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요 자세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는 약속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 현대인들은 빠른 속도에 열광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극적으로 이루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광속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마저도 세상풍조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겠는가?

조금함의 병폐가 곳곳에서 사고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회의 시대적인 조금증 현상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 왔다. 교회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서둘다가 낭패를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농부가 귀한 열매와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농부의 기다림을 말이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속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모양을 갖추어 자랑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 사람보다 속사람의 부요함과 충만함을 원하신다. 내면의 부요함은 고요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약속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어둠속에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야 한다. 기다림을 이유로 허송세월 할 것이 아니라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기다림은 풍성한 열매로 응답할 것이다. 흥수심만 때에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고요히 기다리고 참았다. 노아에게 방주는 기다림의 장소였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을 돌아보셨다.

40주야를 내린 큰 비가 홍수 되어 150일간 온 땅을 뒤 덮었다. 식량은 한정되었고 생명들은 물위 방주 안에 있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으나 방주안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안전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바람으로(영으로) 생명을 구원하셨다. 노아는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지만 조금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후에야 그는 움직였다. 어느 경우, 어느 시점에서든 서두름으로 큰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판야의소리



황호관 목사
(정경총회장, 본보 사장)

세월호 희생 이후 이런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안전한 나라, 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당국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사고 못지않은 대형 사고 소식이 온 나라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숨은 멍었고, 흘릴 눈물도 없었다. 155명(추가되어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사고는 실로 참사였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것도 halo원전아재라는 잔치요, 축제에 나갔는데 압사라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입을 막고 함구령을 내렸던 코로나-19의 폭압으로부터 자유 하여 모처럼 마스크를 풀고 마음껏 소리 지르며 움츠렸던 가슴을 열어 보라라는 호기를 품고 집을 나섰을 터인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다니! 그 아픔을 고스란

초청칼럼



문용길 목사
(한마음교회 원로)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말, 말, 말!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이미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모든 채로 계속 말을 쏟아내며 살아간다. 우리의 조물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색깔의 의미도 부여하셨을 것이다.

입술은 빨갛고, 이는 하얗고, 입안은 온통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를 통하여 조물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훈하실 것인지 살짝 짐작해 본다.

“말을 할 줄 아는 인간은 들어라. 말이란 자기 생각과 내면의 의증을 밖에 드러내 보이는 통로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결백과 순결의 관문을 통과해야 말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히 당했을 부모 형제들의 아픔이 오죽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차온다.

이제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 냉정하게 복기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현장에서 통곡할 일이 없기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니까 말이다.

내력도 모르는 외래문화와 풍습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지킬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몇 년 내에 우리 문화현장으로 가만히 들어와 자리를 잡은 화려한 <무슨, 무슨 Day>가 그렇게도 많다.

화이트 데이, 발렌타인 데이, 와인 데이, 로즈 데이, 키스 데이 등, 보도 들도 못한 날들이다. 그중에 하나가 이태원을, 아니 대한민국을 슬픔의 도가니로 쓸어 넣은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이다. 이 날들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 날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속내는 그릇된 상흔(商魂)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보리고개를 넘으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지 않았던가?

축제라든 복치고 장고치는 사물놀이 한마당이 제격이요, 그네타고, 널뛰고 율놀이에 강

강슬레가 다였다.

그런데 급속한 산업화의 파고를 타고 배부르고 등 따신 세상이 갑자기 왔고 사물놀이가 아닌 그 이상 무엇에 목이 말라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돈이 될 것 같다는 계산에 맞아 떨어지면 도입하고, 수입하고, 밀수까지 마지않은 것이다. 건전한 모양으로 자리매김을 한 날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할로윈(Halloween) 축제는 본래에서 너무 멀리 왔지 싶다. 무시무시한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참석하는 가장 무도하나 환락과 유희의 밤쯤으로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래 할로윈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사를 당할 일은 처음부터 없는 날이었다.

본인이 미국에서 경험한 <할로윈>의 저녁 풍경은 어린이들이 플라스틱 주머니를 챙겨들고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높은 호박으로 장식한 가게는 이웃집을 방문하여 사탕이나 초콜렛을 받아 모으는 어린이들의 흥미 있는 놀이 정도였다.

원래 할로윈은 아일랜드 켈트족들이 죽음의 제왕 사면을 섬기는 삼하인(Samhain)의 식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성인의 날(All Saints' Day; 萬聖節)전날 밤에는 여기저기에

서 온갖 요정들이 세상으로 나와 활약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 특히 가장 최근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다. 이때 사용된 방법이 변장과 행진, 그리고 햇불이었다. 사람들은 집승의 가족이나 머리를 이용해서 마치 약마나 도깨비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드루이드교 사제가 ‘신성한’ 딱갈나 무를 쌓아 만든 거대한 화롯불이 있는 곳까지 행진을 했다.

변장한 사람들의 행진이 그곳에 이르면 각자가 미리 준비한 소리 내는 물건 하나씩을 꺼내어 화롯불 속에 던졌다. 그 물건을 불에 태움으로써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모든 의식이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화롯불에서 꺼낸 불붙은 장작 하나씩을 들고 가서 자기 집 난방도에 불을 지폈다. 고대 로마인들이 켈트족을 정복하기 전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할로윈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생사잡는 참사를 불러온 악제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입소문과 귓속말 이야기

다 해도 그 올리는 파장은 속단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무시하고, 자신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한번 다정한 친구에게 귓속말로 정보를 나눠보자. 그 파장과 영향력을 즉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서운 전파력에 가슴을 쓸어내릴지도 모른다. 百聞不如一見이라는 실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위해 좋은 경험을 쌓는 일이니 실행해 보시라. 대부분의 인간은 비밀과 호기심으로 뭉툭 묻혀있는 존재이어서 실험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이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비유 가운데 누룩비유가 있다. 나는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내면이 호기심에 긴 목을 빼고 비밀이란 말을 너무 좋아하기에 주님은 은밀하게 퍼지는 누룩의 특성을 이용하신 깊은 뜻이 내포되어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하철 안이나 어떤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소리로 전하는 분들을 볼 수 있다. 효과적인 면을 따져보자. 듣는 분들 편에서 말한다면,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분들이 매우 적기 때문이요, 오히려 전혀 효과 없다는 표현

도 거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옆에 가까이 앉은 분의 귀에 소곤소곤 말해보라. 깊은 관심과 함께 귓속말로 말한 의도대로 행동에 옮길 것이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의 호기심은 깊고 비밀을 좋아하는 밑도가 조밀하기에 복음을 전할 때 누룩처럼 소리 없이 퍼져가는 것을 말씀하셨으리라 짐작해 보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주님의 행적도 광고하기보다 입단속을 시켜 은밀한 중에 움직이셨으나 그러한 경우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니 주님은 지혜로우셔서 사람의 이런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하셨을까?

물론 행하심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지만, 우리의 언행이 누룩처럼 조용히 사람을 부풀리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입소문과 귓속말을 더 선호하고 관심이 큰 것을 보면, 인간 심리가 은밀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말을 선호하니 한번 검증대에 올라가 자신을 검증하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면 긍정의 의도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극대화를 이뤄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교회예배안내

승도가나안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9:00 2부 11:00
주일 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 밤	7:30

담임 김 의 철 목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34-17
전화 010-2247- 8388

성현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11:00 2부 5:00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9:00

담임 강 대 민 목사

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43(독산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

덕소제일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2:00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9:00

담임 박 만 진 목사

12214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18-4
전화 (031)521-0691 / 010-6358-0191

평안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11:00 2부 오전 11:00 오후 3:30
수요일 밤	7:30
구약예배(금)	오후 7:30

담임 이 경 근 목사

5535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장평2길 85
전화 010-9928-8218

광일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9:00 2부 11:00 오후 3:00
수요일 밤	7:30

담임 장 영 광 목사

14205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31번길 5(광명동)
전화 (02)2687-4127 / 010-5004-0114

모악교회



예배시간	
새벽	05:00
주일 낮	오전 11:00 오후 7:30
수요일 밤	7:30

담임 홍 주 일 목사

551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34-2
전화 010-4170-9191

재언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9:00 2부 11:00
주일 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 밤	7:30

담임 임 중 학 목사

5497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6(중학산동2가)
전화 (063)225-0571, 222-0573 / 010-7294-0571

꿈꾸는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황 호 관 목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287번길 5
전화 010-6249-5982

남광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최 갑 철 목사

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4길 7-3
전화 063-227-4191/ 010-3654-4191

낙원교회



예배시간	
새벽	05:00
주일 낮	1부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김 중 봉 목사

54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로 2길 10
전화 010-2375-5937

화평교회



예배시간	
새벽 기도	4:30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00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오후 9:00

담임 박 중 윤 목사

549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5길 3-3(서신동)
전화 (063)271-0691 / 010-2923-7798

새목장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

담임 김 만 술 목사

1339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회암로 375(상대원동) 3층
전화 010-8561-9192

중심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오전 10:30 오후 1:00
수요일 밤	7:30

담임 박 경 남 목사

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원로 97-11(원현동, 일산위브트레니츠) 101동 2507호
전화 010 8800-5342

벤엘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9:00 2부 11:00
주일 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 밤	7:30

담임 박 성 옥 목사

14908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22, 서강프라자 2층
전화 010-9127-2010 / 031-311-0213

한빛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부 9:00 2부 11:00
주일 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 밤	7:30

담임 임 용 태 목사

04776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
전화 010-5397-2627

세계관공부 성경적세계관바로알기-2



부회의록서기 박국서 목사
(새부친교회 담임)

세계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세속적 세계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세속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다. 세속적 세계관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뜻이고, 성경적 세계관은 천국의 임금인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세상의 뜻을 따르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성화되는 비결이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인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기독교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삶 속에 실현하는 종교’라고 설파했다.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은 흔히 불신자이면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기독교인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의 실태를 살펴보자. 전 국민의 1/5이 기독교인이고, 세계 십대대교회화가 다 한국에 있다.

그런데 타이타닉 호 같이 거대한 한국교회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종말의 선지자라고 하는 로렌 커닝햄 목사(예수전도단 설립자)가 한국교회를 방문한 후에 호주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국 교회는 너무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거짓말을 잘한다.”정곡을 찌르는 충격적인 말이라고 동의할 표하고 싶다.

이는 곧 한국 교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의 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성경

적 세계관에 이끌려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좁은 길이 아닌, 그 반대의 넓은 길을 가고 있음이 틀림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수많은 설교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방자하여 정반대의 사상인 세속적 세계관을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인들은 그것이 진리 인양 믿고 따라 가고 있으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마15:14).”시간이 없다. 속히 각성하여 돌이켜야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 사역자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책망만 받은 이들은 사데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이고, 칭찬만 받은 이는 서마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이다.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것일까?

단순한 행실이 아니라 세계관이 다. 사데와 라오디게아 사역자는 목회도 잘하고 사회적 명망도 있었지만 세속적 세계관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서마나와 빌라델피아 사역자는 환란과 궁핍 속에서 초라한 목회를 하고, 올곧은 믿을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내의 생활영성을 실천하고 있었다.

기독교는 영웅적 행실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신본주의적인 종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생활영성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삶이됨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러나 성경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생명과도 선악과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동일한 성경을 세속적 관점으로 풀어낸 것이 변영신 하이고, 성경적 관점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광애심자가신학이다. 변영신학의 핵심은 인간의 변영이다. 그러나 광애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김다은 목사
(온돌교회)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시 133편 표준 새 번역 개정판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1절은 개혁신대 예배,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찬양으로 하나 됨의 열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단의 강점인 모든 모임은 예배드림부터 이 좋은 신무기가 어디 또 있을는지, 이로 아침과 저녁을 예배로 살아오신 가나안과 만남으로 하나 되었기에 감사하다.

워크숍 <교단발전비전과 방향>에서 1. 총회신학연구원과 인재양성 및 건물 하드웨어 2. 영성이 뛰어난 교수 영입 3. 은급제도; 목회자, 선교사, 복지 연금 4. 트렌드 마크로서 교단 본부 5. 교

제107회기 추계 워크숍 이크노스(Ixnos)

단합동과 영입에 있어서 기득권 내려놓기 6. 개척지원 7. 교단 발전위원회 조직제안 등은 중보기도의 핵심과제였다.

(목회자와 인과 관계)에서 군목 33년 7개월 동안에 불교신자 부연대장을 상판으로 모시며 예수님이 마신 쉼잔도 마시고 인내와 온유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선으로 악을 이긴 승리의 간증은 맛으로 치면 감칠 맛 나는, 군대니까 역전승의 생생한 현장에서 함께 고소한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 같은 경우에 우리도 참여하길 터인데 어이할고!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2절의 모습은 세미나 1강; 아론의 후예들이 지켜야 할<헌법>에서 위원장님의 원고 기록이 워크숍의 품격을 플러스하였다.

준비가 무리요면 헌법도 부드러운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특히 지교회화가 아닌 개체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강조는 그동안 경험을 통하여 습득된 유익한 정보였다. 아울러 장로님 총대 참여수에 관한 애로사항도 듣게 되었다.

세미나 2강! 호서대학교 김동주 신학원장님은 지금까지 후학들을 길러 오신 신학과 신앙에 관

하여,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내용을 전해주셨다.

학문의 전당에서 지도하는 실력으로 간단 명료,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 제시와 함께 무한한 감동도 주셨다. 공과대학에서 제1 큰 초교과 신학원을 운영해 가는 벤처 정신과 기독교 정신 그리고 호남 형이 주는 인격에서 따뜻함이 마음에 남았다. 종합문의를 질의에도 화목이 좋은 것임을 보여 주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3절은 살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상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과 피아노 반주 듀엣이 하나의 교백으로 성령 충만함 그 자체였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의 별이 되어 아버지 계신 삼천 층에서 빛났을 것이기에 감사하였다. 말로만 듣던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오게 되었는데, 일단 옷깃을 여미고 다시 기도속도를 조절하고 계시록 시대 칭찬받던 두 교회 빌라델비아와 서마나교회로 주신 여건에 자족하며 처음 사랑을 드리려고 주님을 볼 때는 예배

였다. 가나안교회는 손님 대접을 말씀대로 더 진한 포도주로 잘해 주셨다. 청결한 교회의 숨은 일꾼들, 차량과 안내위원의 자세한 친절이 좋았고 절약과 풍요가 갖든 정성스런 식사의 수고도 주님께서 갚아 주시라는 인사를 기도로 승격시켰다. 선물로 주어진<갈빈 신학과 그 후예들> 영문번역본은 지식의 은사대로 나눠주시니 그 지나온 노력이 귀하여 꼭 정독으로 감사 드려야겠다.

또한 교단의 한마음운동본부 동문회에서 살뜰하신 회장님은 매일 사용하는 타올로 사랑을 주셨다. 성탄의 종소리가 울리면 송도가나안교회 예배당은 완공이 되고 개혁신대의 슬로건 맑고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의 종소리로 울려 드리게 하소서!

모두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자라도록 깨어 한층 질서와 품위가 업그레이드 된 워크숍 이크노스 길에서 노회와 개체교회마다 주는 복으로 살 수 있기를, 그 부흥이 것들기 묵상하며 - 어찌 이보다 즐거우랴 어찌 이보다 아름다우랴 형제자매 오순도순 아끼며 주머시는 것.

제107회기 총회 추계 워크숍을 다녀와서



조성용 장로
(장로부총회장)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3:16)”저는 총회장로부총회장으로서 금번 워크숍을 통해서 이 천국 같은 말씀을 깨달았고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예배! 예배! 예배!] 지금까지 짧지 않은 일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말해왔고, 들어왔던 말! [예배!] 이 단두음절 짧은 단어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으며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교단’이라는 통합총회를 이루고 갖게 된 총회 이후 첫 워크숍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임을 알고 믿게 된 행사였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분열과 반목으로 너무도 많은 상처뿐이었던 우리 교단이 모처럼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기도 진행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김의철 총회장님이 섬기시는 송도가나안교회라는 현장을 통하여 저도 남은 생을 예배로 승부를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이 우렁차고도 파격력 있는 찬양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사탄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고, 매 예배 때마다 드러지는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 힘 있고 활기찬 자신감에서 쏟아져 나오는 능력의 말씀,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를 통해서 영혼과 육신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기쁩습니다.

또한 강의를 통해서 접하게 된 헌법의 중요성과 개체교회와 지교회의 차이점등을 이해하면서 섬기는 교회와 소속된 노회와 총회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영역이며 일동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기름부음 받은 목사·장로로써 어떠한 자세로 교회와 노회, 총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헌법위원장(황호관 목사)의 강의도 참 감명 깊었습니다.

더불어 호서대학교 신학대학원 김동주 원장님을 통한 강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

를 사랑하셨는지! 이수정님을 통해서 이루신 성경번역의 대역사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워크숍 분위기가 성경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느낄 수가 있어서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위대한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송도가나안교회를 통하여 모처럼 도전을 받고 꿈을 품을 수 있게 되었으며, 반드시 우리 개혁신교단이 김의철 총회장님의 취임일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총회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명품교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종시에서 김제시로 약7년여 동안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러 다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나를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도 했었는데 송도가나안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금번 워크숍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매일 김제에 내려가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고전3장16절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더 예배에 목숨을 걸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길 교회에서도 김호은 장로님을 비롯한 몇 분의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아 온 힘을 다해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개혁신교단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총회장님께서 외치신대로 모두 함께 예배에 목숨을 걸어 우리도 송도가나안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으며, 날마다 여기저기에서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복된 소식들이 넘쳐나는 명품 개혁신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4:20)”는 말씀처럼, 형식에서 벗어나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으로 금번 워크숍을 위해서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해 주신 송도가나안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영복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00</div><div>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div>담임 이충년 목사</div><div>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송로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div></div></div></div></div></div>	<div><div>동명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00</div><div>금요일아: 9:30</div></div></div></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div></div></div></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삼일밤: 7:00</div><div>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프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div></div></div>	<div><div>디베라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00</div><div>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div>담임 신연식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39-7 전화 010-5438-0811</div></div></div></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00</div><div>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div>담임 정완득 목사</div><div>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전2길 24-6(삼천동1가) 전화 010-7285-8291</div></div></div></div></div>
<div><div>등주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30</div><div>금요일아: 8:00</div></div></div></div></div><div>담임 김양섭 목사</div><div>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div></div></div></div></div>	<div><div>높은뜻세움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9: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00</div><div>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div>담임 김선영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일로 32 전원마을 월드상가내 전화 010-2301-0898</div></div></div></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3:3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30</div><div>구역예배(금): 7:30</div></div></div></div></div><div>담임 윤서구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창로534번길 6-8(산성동) 전화 010-3722-9106</div></div></div></div></div>	<div><div>중울산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삼일밤: 7:00</div><div>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div>담임 김정용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div></div></div></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30</div></div></div></div></div><div>담임 박준호 목사</div><div>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1길 16-11(삼천동1가) 전화 (063)226-9111 / 010-9278-5653</div></div></div></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9: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30</div></div></div></div></div><div>담임 박춘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div></div></div>	<div><div>한마음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7:00</div></div></div></div></div><div>담임 한상진 목사</div><div>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2길 42 전화 010-7676-6891</div></div></div></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00</div><div>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div>담임 박광식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1(상월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div></div></div>	<div><div>한소망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7:3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30</div></div></div></div></div><div>담임 김정호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안1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div></div></div></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div></div><div><div><div>주일: 11:00</div><div>오전: 2:00</div></div></div><div><div><div>수요일밤: 7:00</div><div>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div></div></div>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어려울때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신 직원들
열심 노력하여 총회신학연구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총회신학 연구원 교직원 일동



총회장
김의철 목사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종학 목사



교수부장
황호관 목사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북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 개혁신학연구원 사이버대학 모집

1. 모집

수시모집

2. 수업장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3. 문 의 처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4. 후원통장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이사장 : 윤서구 목사
원 장 : 임종학 목사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